

LF 닥스, 내달 3일까지 '머플러 특가' 진행

LF 닥스가 1월 3일까지 LF몰에서 '머플러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시미어 소재를 활용한 인기 아이템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선물용으로 제격인 2중 세트 상품을 한정판으로 구성해 3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머플러 제품 구매 시 닥스 브랜드 기프트 상자를 무료로 증정한다.



금융 | ESG경영 일환, 친환경 행보에 속도내는 카드업계

친환경 특화 카드로 '그린슈머' 공략 나선다

가치소비 증시 고객·ESG 성과 겨냥
KB·우리, 친환경 소재 카드 선보여
신한, 전기차·전기버스 보급 지원



카드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green+consumer)' 등 가치소비를 중시 여기는 고객을 겨냥했다. 친환경을 통해 ESG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환경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먼저 친환경 특화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KB국민카드의 'EVO 티타늄 카드'가 대표적이다. 일반 플라스틱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무 시트와

카드업계가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 특화 카드인 KB국민카드의 'EVO 티타늄 카드(왼쪽)와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어스'.

코젠 시트 등 친환경 소재와 항균 99.9% 효과가 있는 항균필름을 카드에 적용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등 친환경 업종 이용 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환경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10년 이상 고객 대

으로 친환경 소재 카드를 발급해주는 장기고객 우대 서비스도 마련했다. 고객이 원하는 적인과 소비습관 조건 등을 한글 12자, 영문 24자 범위에서 레이저로 각인한 친환경 소재 카드를 발급한다.

우리카드는 친환경과 착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카드의정석 US(어스)'를

선보였다. 카드 제작에 나무 시트, 에코젠 시트, 항균필름을 적용했다. 상품안 내장도 100% 사탕수수를 이용한 재생 용지를 사용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시 이용금액의 50%,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등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친환경 소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친환경 캠페인도 눈에 띈다. 신한카드의 '그린 모빌리티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전기차와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이다. 연말까지 전기버스 판매 1대당 10만 그린 마일리지(10만 원 상당)를 적립해 환급단체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도심 속 건강한 공원과 녹색 지구를 만드는 '신한카드 에코존'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2021년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맹견보험’ 안 들면 과태료 300만 원”

도사견 등 5종 대상...옥외광고물도 책임보험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과 시행이 내년 2월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테리어, 스테퍼드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다.

이 외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시 이를 배상하기 위함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소방 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도 신규 도입된다. 소방 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방 시설의 공사, 관리 사업 등에 적용되며 내년 2월 시행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한독, 장 건강·면역력 '컬처렐 이문 디펜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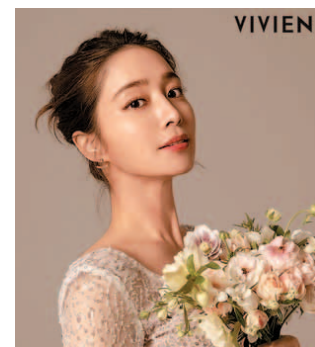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장 건강과 면역력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컬처렐 이문 디펜스(사진)'를 출시했다.

LGG(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GG) 유산균과 비타민C, 아연을 함유한 3중 기능성 제품이다. LGG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에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력을 통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1일 1회 1캡슐로 식물의약품안전처 기준량에 충족하는 100억 마리(CFU)의 LGG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C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며,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

씹어서 먹는 상큼한 맛의 츄어블 타입 유산균 제품이며, 블랙 엘더베리 분말을 함유하고 있다. 콤팩트 한 사이즈의 병 포장으로 되어 있어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고 실은 보관도 가능하다.

정용운 기자

비비안, 새 모델에 배우 이민정 발탁



비비안이 새 모델로 배우 이민정(사진)을 발탁했다. 회사 측은 "이민정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가 브랜드 정체성과 일치한다"며 "전 연령층에 폭넓게 사랑받고 있어 기존 고객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아우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봄·여름 시즌 이민정과 함께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는 물론 가깝고 심플한 디자인의 새 스타일도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銀 '적금으로 만드는 소소한 행복' 이벤트



하나은행이 1월 31일까지 '적금으로 만드는 소소한 행복(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제공 혜택별로 '부자되소', '건강하소', '맛좀보소' 등의 주제로 열린다. '부자되소', '건강하소'는 온·오프라인 신규 적금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골드바를, 20명에게 한우세트를 증정한다. '맛좀보소'는 하나은행 적금 미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을 통한 적금 신규가입 시 선착순 1만 명에게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준다.

정정욱 기자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팔고 배민 품는다

DH,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수용
요기요 놓고 인수합병 전쟁 예상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경쟁사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위해 친자식 요기요를 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DH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 2위 배달앱이다. 앞서 DH는 작년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이에 조성

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2%로 압도적인 만큼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DH가 공정위의 명령을 받아들인으로써 점유율 99.2%의 '배달 공동업' 탄생은 불발됐다. DH가 6개월 내 요기요 매각을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배달 앱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면 요기요 매각을 둘러싼 인수합병(M&A)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연말연시, 달콤한 애플망고 드세요" 현대백화점이 1월 7일까지 전국 15개 점포 식품관에서 페루 수출 관광청과 함께하는 애플망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페루산 프리미엄 애플망고 '켄트' 품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김상일 H+양지병원장,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김상일(사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이 최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제도로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자리 질 개선 등



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상일 병원장은 모성보호 제도 확대, 비정규직 차별 근절, 장애인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용운 기자

요진건설산업, 서초·평택·부천시 3000억원대 수주 쾌거

평택 세교1 주택재개발 등 잇달아 계약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평택 세교 1구역(사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초동 1330-11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부천과안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등을 잇달아 계약하며 3136억 원(부가세 포함)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올렸다.

평택 세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02-5번지 일원에 연면적 20만7806.7m², 지하 3층~지상 32층, 아파트 15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식회사 신한파트너스가 발주한 서초동 1330-11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1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136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부천과안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는 경



기도 부천시 과안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8층 및 20층, 4개동 총 28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게 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